

사이의 시간 The Time Between

누가복음LUKE 2:18-19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누가복음LUKE 2:8-20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8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10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11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12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15 When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over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Let’s go check it out. You think? Of course you would. You witnessed the heavenly host telling you about a new baby. It goes on. 16 And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a manger. 17 And when they saw it, they made known the saying that had been told them concerning this child. 18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what the shepherds told them. 19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20 And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had been told them.

누가복음LUKE 1:1-4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Inasmuch as many have undertaken to compile a narrativ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accomplished among us, just as those who from the beginning were eyewitnesses and ministers of the word have delivered them to us, it seemed good to me also, having followed all things closely for some time past,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that you may have certainty concerning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누가복음LUKE 1:31-33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Based on the details of the genealogy and the personal details (the angel Gabriel’s visit to Mary, the time with Elizabeth, swaddling clothes), these are Mary’s own details.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누가복음LUKE 2:40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wisdom. And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누가복음LUKE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누가복음LUKE 17:20-21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he answered them,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in ways that can be observed,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마태복음MATTHEW 11:28-30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쉬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마태복음MATTHEW 28: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